

# Contents | 목차



## 해외소식

- 06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인도의 마을에서 나를 돌아보며 | 이은숙
- 10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폐허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 김진진
- 15 **쫄리읍수어, 캄보디아**  
학교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 김재령
- 18 **밍글라바, 미얀마**  
아름다운 추억 | 김성현



## 국내소식

- 22 **함께 나누는 사랑**  
춘천 서상초등학교 기부금 전달식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긴급구호 거리모금  
방송인 김제동씨,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호에 1,200만원 쾌척  
프로골퍼 김인경선수, 태풍 피해 긴급구호에 3,000만원 기부  
JTS와 길벗이 함께하는 2013연말 거리모금
- 28 **함께하는 사람들**  
진건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권민성, 금시열



## 활동터소식

- 32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 해외 파견 자원활동가
- 39 **후원인의 소리**
- 40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4. 1. 6 퍼넬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다운이 김지은, 양은지, 김옥희, 윤재승, 이미경, 최양희, 최기진, 서민정, 신인환, 박용대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후원회원 여러분의 사랑으로 기아·질병·문맹 퇴치라는 JTS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도 얼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려고 준비한 물건들이 창고에 묵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전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가슴이 아파 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상황이 개선되면 즉각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봄은 추운 겨울을 보낸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JTS의 인도 사업장인 수자타 아카데미는 개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짜르카를 이용한 채반 교실을 개설하여 마을 부녀자들의 소득창출을 마련하고, 현지 청년들과 함께 5개 마을의 핸드펌프 공사를 진행하여 모두 성공하는 등 마을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보건·위생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 사업장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년간 JTS를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활동가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JTS 역시 다물록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정부와 JTS가 손을 잡고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모델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JTS는 다물록 시에 목욕장을 만들고 보건소와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등, 지역 농가의 소득창출과 보건위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다물록 시의 보건정책 위원회 멤버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큰 비에 끊어졌던 알라원 마을 다리 복구공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JTS가 지원하는 학교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교사워크숍을 개최하고, 약기나 영문 책자를 제공하여 수업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주민들의 주인 의식과 더불어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11월 초,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호물자를 운반하고 배분할 수 있었던 것도 다년간 활동하며 역량을 쌓아 온 현지 활동가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이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참담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

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전국 거리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금 활동가 여러분과 긴급구호 후원에 동참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1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억에 달하는 긴급구호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JTS는 필리핀 레이테 섬 타나우안(Tanauan) 지역 3개 마을 2,000가구의 주민에게 1차 긴급구호 지원물자를 성공적으로 분배하였으며, 현재 사말 섬 마라봇 지역에서 파괴된 교실 100칸을 재건축이나 수리를 하는 조기복구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모금에 동참해주신 활동가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학교건축이 마침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참여의 약속이 생계를 위한 농사일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공사가 미뤄지고, 기술자가 갑자기 떠나버리는 등 지금까지의 공사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다. 하지만 캄보디아 JTS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약속을 상기시킨 덕분에, 주민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길었던 학교공사를 마침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릴 것 같은 교실에서 위태롭게 공부해야만 했던 아이들, 강 건너 먼 마을까지 먼 길을 매일 통학해야 했던 아이들이 더 안전한 마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육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식수개선사업 등 마을개발을 위한 실험적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기술자 고용이 불가피하고, 고용된 기술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착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느꼈습니다. 관개수로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는 시설 관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지역사회의 주민의식의 결여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해 왔으나,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민의식이 함양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기 위해 소모되는 노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JTS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긴급구호로 출발한 인도네시아 사업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미얀마 JTS 사업장에서는 다리 3량을 재건축하고, 초등학교 하나를 재건축함으로써 2012년 태풍 피해의 긴급복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웅산 장군 나루터를 복구하고, 마을 운동회 사업과 학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업장은 특히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우리 마을의 사업은 JTS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려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성에서 발전 가능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활동가를 파견하고 사업을 시작한 라오스 사업장도 빠른 속도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 문구류 지원을 마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새 학교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라오스 JTS 사업장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JTS는 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식사한 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해 집과 가족을 잃고 학교마저 무너져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JTS는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들에게 밝은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이들의 빛이 되어주시시오.

갑오년 한 해에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1일  
JTS 이사장 범룡 합장

수자타 재봉반 졸업식

# 인도의 마을에서 나를 돌아보며

## - 수자타 재봉반 졸업식



지난 9월에 인도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로 파견된 이은숙 활동가께서, 지난 3개월간 사업장에서 재봉반을 운영하며 느꼈던 이야기를 전해오셨습니다. 어느새 정들었던 재봉반 학생들을 졸업시켜 내보내는 활동가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이은숙 활동가

2013년 9월 1일,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에 도착했다. 주변의 배려로 여정을 풀며 하루를 꼭 실 수 있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의 첫 느낌은 설렘과 두려움이었다. 1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인도 JTS의 부서별 업무 안내를 들으며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도 해보았다.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끝나고 나는 마을개발 부서의 재봉반과 짜르카 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인도의 독립 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천민과 극빈자들을 위해 전기 없이 실을 만드는 짜르카(실 짜는 기계)를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재봉반 역시 마을 부녀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다.

처음 재봉반 학생들과의 대면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서먹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이곳 아주머니들도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 가져온 매니큐어를 손톱에 발라주니 아주 좋아 했다. 마음을 열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니 그들 또한 나를 편하게 대해주었다.

재봉반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힌디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것저것 몸짓을 섞어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일에 대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짐에 따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감으로도 알게 되었다.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헤나 염료를 가져와서 내 손바닥에 꽃이나 태양 문신을 그려주는 학생들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봉반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과 보드 가야 나들이를 나섰다. 생전 처음으로 마을을 떠나 외지로 나들이를 나온 학생도 있었다. 그들의 설렘과 들뜬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재봉반 선생님도 즐거워 보였고, 나 또한 즐거워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짜르카 교육중인 재봉반 학생들

“그들은 졸업장에 연연하지 않고 나보다 더 편안해 보이니 말이다.”

사진을 찍을 때면 옛날 우리 어른들의 사진에서 보던 그들이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게 되었다. 정말 기쁘고 좋은데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것 같은 표정들. 좋다고 하면서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면서 부동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부모님들께서 찍은 사진이 생각났다. 아무리 웃겨 보려고 해도 표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면 그제야 웃음을 짓는 학생들이 참 보기 좋았다.

우리 재봉반에는 총 14명이 입학했지만, 그 중에서 2명만이 졸업장을 받게 된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졸업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 졸업 작품을 제출했어도 출석률이 저조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도 있다.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해야 한다며 학생의 어머니께서 학생을 데려가는 경우, 수업 보다는 집 안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고동락했던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나쁜인 것 같다. 그들은 졸업장에 연연하지 않고 나보다 더 편안해 보이니 말이다. 학생들에게 졸업 선물로 옷감과 실, 바늘을 주었는데 많이 좋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졸업식을 마치고 재봉반 선생님 집에 점심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했다. 선생님 가족들이 손님 대접을 위해 일도 나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다. 자기들은 뭘 먹지도 않고, 우리에게만 단 과자와 차를 주시는데 어찌 그래 송구스럽던지. 같이 먹자고 이야기 하니, 그제야 아이가 좋아하며 과자를 먹었다.

현지 생활 모습이 한국에서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한참동안 집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먹는 것에 얼마나 사치를 부리며 살아왔는지 느껴지는 것이 있어 마음이 숙연해졌다. 부엌을 둘러보고는 더욱 놀랐다. 부엌에는 조리도구들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없어보였다.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는 칼도 종류별로 여러 개, 그릇도 장식용 그릇까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놓아두고 좋아하던 나의 생활습관이 부끄러워졌다. 재봉반 선생님께서 집에 초대를 해주신 데 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방문을 기회로 내 생활을 반성하고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마을 개발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마을에 핸드펌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집을 보수하고 개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종종 마을에 나가게 된다.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마을 아이들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우리들을 반겨줬다.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신랑에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던 일이 생각 나 혼자서 반성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의 우리 아이들은 풍요로운 속에서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며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곳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유익할 것 같다.

1년 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긴 기간인데, 그동안 이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쓰이게 될 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인 것 같다. 여기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보다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3개월을 지낸 것 같다.

처음 이 곳에 발 디딜 적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곳에서 생활하면서는 그 마음을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 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조율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심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려는 일만 했구나 싶었다. 먼 타지에서 같이 봉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적었구나. 활동가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으면서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이제 지난 3개월간의 파견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앞으로 남은 활동기간 동안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모두와 함께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재봉반 졸업생들의 보드가야 나들이



## 폐허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 긴급구호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도 새로운 다짐,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시겠죠? 지난 11월 태풍 하이엔(여기에서는 올란다 Yolanda라는 명칭을 더 많이 씁니다)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지역 역시, 폐허 속에서도 새해의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진진 활동가

태풍이 지나간 이후 UN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단체의 활약으로 현재 현지의 식량 사정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필리핀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특히 한국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어 오히려 현장 소식이 늦은 편인데, 현장에서 만나는 현지인마다 “TV에서 한국이 (구호물품을 실은) 큰 배를 보낸 것을 보았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온 배가 가장 컸다.”며 감사를 표해, 다소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JTS 역시 지난 11월 12일 긴급구호 조사팀을 급파하고, 18일에는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인근 타나우안 지역 3개 바랑가이(행정구역) 주민 2,000 가구에 식량과 위생용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긴급구호 조사를 수행했던 송지홍 활동가가 간간히 보내왔던 상황일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참담했던 피해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 ■ JTS 긴급구호 상황일지

**11월 12일 - 긴급구호 1일차** 긴급구호를 위한 파견팀이 꾸러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로를 찾았습니다. 레이테 섬의 비행장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테 섬 오르목이란 곳으로 들어가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일까지는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13일이 돼 처음으로 화물선이 타클로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물선에는 사람을 태워주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가져가려고 싸 둔 생필품

여기 부두에는 레이테 섬에 사는 가족과 지인을 만나러 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마다 먹을 것과 생필품들을 양 손 가득 싸들고 가는데, 정작 배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오르목은 타클로반 시의 서쪽에 있는데, 오르목에서 타클로반 까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청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민간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르목에서 타클로반으로 가는 길이 전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재난 지역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11월 13일 - 긴급구호 2일차** 가까스로 오르목 시에 도착했습니다. 딱히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어서 시청에서 숙박하고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났는데, 어느새 NHK에서 온 방송팀이 엄청난 크기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고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 옥상에 올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지붕이 성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영성한 대피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 대부분은 무너진 잔해를 대충 치우고는 자기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멀쩡한 지붕이 별로 없는 오르목 시 풍경

아침 일찍 부터 사람들이 가게에서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기름을 파는 가게도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르목 시는 다행히 해일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일 지난 오늘에서야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물가는 태풍이 오기 전보다 1.5배는 올랐고, 특히 휘발유 가격은 3배 가가

이 올랐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하고, 저유소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파손되어 기름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르목은 세부로 부터 물자를 공급 받을 수 있어서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타클로반으로 가는 도로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보가 있어서, 가능하면 외국인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단체 조끼도 벗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가장 싼 버스를 타고 타클로반으로 이동합니다. 버스에는 오르목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타클로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클로반으로 가는 길

오르목에서 북쪽 카랑가로 이어지는 도로를 타는데 시간을 이동하는 도중 둘러보니, 길가에 위치한 집들 중 멀쩡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타클로반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펼쳐진 풍경은, 오르목의 두 배 정도 되는 엄청난 파괴의 현장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타클로반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오르목의 상태가 중환자가 막 깨어난 정도라면, 타클로반은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입니다. 길거리에는 인적이 없고 악취가 진동하며, 부서진 쇼핑몰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다운타운을 걸어 UN OCHA(국제연합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지휘부가 있는 타클로반 시청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많습니다. 벨기에 구호팀, 터키 구호팀, 독일 구호팀, CNN 방송팀이 있는데, NGO에서 파견된 구호활동가보다 언론인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외부

에 현지 상황을 알리고, 그걸 통해 모금된 돈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을 주민에게서 “죽지 않았으니까 고마운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싶습니다.

**11월 14일 - 긴급구호 3일차** 태풍으로 부서진 타클로반 거리를 둘러보는데 악취가 무척 심하게 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든 도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려는 버스 창문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자녀를 버스에 밀어 넣는 부모들

**11월 15일 - 긴급구호 4일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곳을 우선한다는 JTS의 사업원칙에 따라, 많은 지원이 집중된 타클로반 시를 떠나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인근의 타나우안 시를 긴급구호 지원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파견팀이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동안, 민다나오의 필리핀 JTS 센터에서는 긴급구호 물자를 구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타나우안 시에 도착해보니, 주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많이 파손되어, 태풍이 지나간 지 한참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 긴급구호 5일차** 이재민들은 군 수송기를 타고 마닐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JTS 활동가들은 타나우안의 시장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군 병력이

추가로 파견되어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정부 건물에 들어선 각국의 의료지원 팀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과 회의중인 JTS 활동가들

타나우안 지역의 주유소는 대부분 완파되었습니다. 딱히 멀쩡한 숙소도 없어서 모든 JTS 활동가가 시청 건물의 책상이나 의자에서 쪽잠을 잡니다. 상수도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밥도 하루에 과자 한 봉지 먹는 정도입니다.

**11월 17일 - 긴급구호 6일차** 긴급구호 물자를 마련한 필리핀 JTS 후발대가 컨테이너 두 개에 물자를 챙겨서 바지선을 타고 수리가요에서 릴루안으로 이동합니다. 이 물자는 곧 육로를 통해 타나우안 까지 옮겨져 배분될 것입니다. 배를 처음 타는 현지인 봉사자들은 뱃멀미로 고생하며 선실에서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바지선에 실린 구호물자 컨테이너

**11월 18일 - 긴급구호 7일차** 구호물자가 타나우안에 도착했습니다. 카부이안, 산토니오, 산타크루즈 3개 바랑가이 주민들 2,000가구에 실고 온 구호물자

를 나눠줍니다. 구호물품 세트는 5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가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쌀, 라면 등의 식량과, 간장, 식초, 설탕 같은 조미료, 양동이, 세숫비누, 빨래비누 같은 기초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이재민들



쿠폰을 확인중인 활동가의 노트

물자 배분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구호물품 수령 쿠폰을 분배하고, 줄을 선 순서대로 쿠폰을 확인하고 구호물자를 배분합니다. 물자를 내리고 있는데, 구호물품 중 양동이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식량과 생필품을 받으러 오는 주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주민들은 재난을 겪은 와중에도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구호물자 배분을 기다립니다. 구호물자를 배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알 자지라 방송국 기자와 몇몇 외신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구호물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재해 이전의 모습을 곧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과 학교를



폐허 더미를 뒤지며 놀고 있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은, 이제 폐허 더미를 뒤지며 장난감을 찾습니다.

긴급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곳의 다른 쪽에서는 태풍에 희생된 이들을 묻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2주가 지났지만, 복구는 커녕 아직 사체 수습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격식을 차린 장례식은 고사하고, 간신히 수습한 시신을 굴삭기로 판 구덩이에 한꺼번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자의 시신을 묻는 구덩이

태풍이 지나간 지 2주가 흘렀고 세계 각지에서 전해지는 구호물자로 급한 위기는 넘기는 듯하지만, 태풍 하이옌이 남긴 상처가 아물기에는 아직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 필리핀 태풍피해 조기복구 사업

JTS는 11월 27일 부터 29일 까지 이원주 필리핀 JTS 대표와 송지홍 활동가를 파견하여 조기복구 사업 후보지를 직접 답사한 결과, 사말(Samar) 섬 마라붓(Marabut) 지역을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했던 레이테 섬과 바로 붙어 있는 사말 섬에 위치한 마라붓은 사말 주(州)와 동 사말 주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재난 이전에도 가난했던 어촌마을입니다. 이곳 역시 태풍 하이옌의 바람과 해일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별다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마라붓 지역의 초등학교 교실 131개 중 56개 교실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파된 상황이며, 남은 교실 중에서도 41개 교실은 콘크리트 골조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은 교실도 멀쩡한 곳은 적어서, 고작 12개 정도만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JTS는 파손된 학교 건물의 수리 가능한 교실을 빠르게 수리하는 한편, 그 동안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머물 수 있도록 텐트 교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요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지역 아동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에서는 태풍 하이옌이 지나간 지 이미 오래이지만, 한순간에 온 마을이 폐허로 변한 이곳에서 태풍으로 인한 재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 주민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학교 완공을 기뻐하는 주민들



## 학교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학교 짓기

캄보디아의 라타나끼리에는 툼퐁툼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안에는 5개의 작은 마을이 있으며 전형적인 산골 농촌이다. 소수 부족들이 사는 이 마을에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나무로 된 학교가 있다. 학교는 좁을 뿐만 아니라 많이 기울어져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건물이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튼튼한 학교를 원해서 새로 짓기로 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학교 공사의 첫 삽을 드디어 뚫었다. 하지만 학교를 손수 지냈던 주민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더니 올 1월에 공사가 완전 중단되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김재령 활동가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되었던 당시의 학교



이장님들과 회의를 마치고 손을 잡으며



완공된 툼퐁롱툼 학교와 김재령 활동가



교복 치수를 재기위해 줄을 선 아이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올 6월에 캄보디아에 파견되어서 1월부터 방치된 미완의 학교 건물을 바라보니 쓸 쓸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그 옆에서 쓰러져가는, 나무로 된 자그마한 옛날 학교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더운 여름인데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나는 마을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6월에 면청에서 마을 지도자들에게 웃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기 뭐 하러 왔어요?”라고 한다.

첫 만남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적잖이 놀랐고,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나는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을 하였다.

“마을 주민은 학교 건축에 참여 안 합니다.” 나는 마을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다. “가슴 속에 묻어둔 모든 불만과 어려움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날씨도 더운데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모든 걸 말씀해 보십시오.”

마을 지도자들은 평소에 가졌던 여러 불만들을 하나씩 꺼낸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었다. 학교를 짓기 전에는 학교가 필요하니 주민들이 손수 짓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닥치면서 마음이 바뀐 것이다. 나는 절충점을 찾아서 여러 제안을 마을 지도자들에게 하였는데, 돌아온 대답은 “JTS가 학교를 짓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마을 주민은 학교 건축에 참여 안 합니다.”였다.

“주인이 주인 노릇 하기가 싫다고 하네.” 새로운 학교를 손수 짓겠다는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안 짓겠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했다.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주인 노릇 하기가 싫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좋습니다. 마을 주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학교를 원하지 않으시니 학교 공사를 중단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운 여름에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차마 이 말을 못 했다. 짓다만 학교이다 보니 학교 건물은 동네에서 흥흥한 물골로 서 있고, 후원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구입한 건축 자재들은 주인을 잃고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새로운 학교는 1년이 넘도록 완공이 안 되었고, 옛날 학교는 언제 내려앉을지 몰라 위험하니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학교 공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학교 완공 후에 아이들이 학교 잘 나오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에 있을 때, 주민들이 학교를 간절하게 원하면 툼퐁롱툼 마을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자식들이 다닐 학교를 손수 짓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들이 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를 지으면, 아이들도 학교에 잘 나오고 공부도 잘 한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학교 공사가 원활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하나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의 최종 목표는 학교 건물이 아니라 문맹퇴치이다! ‘남의 자식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 내 자식 같고, 내 자식도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남의 자식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마을에 만들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시멘트 건물일 뿐이다. 나는 JTS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보다 툼퐁롱툼 마을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의 최종 목표는 학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글자를 터득해서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옛말에 그 좋은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 짓는 일을 싫어하는 주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주민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철수하고 싶지만,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 마을에 학교를 완공하고 싶었다. 일단 학교 주변에 널브러진 건축 자재부터 정리를 하면서 주민들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군수, 도 교육청장, 군 교육청장, 면장, 이장님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학교 완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를 보여주었다. 세 달을 기다린 공이 있었는지 주민들과 학교 공사재개를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군수님이 한 말씀 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JTS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학교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학교를 짓는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주민들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문드문 나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 건축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남녀가 서로 애정이 없더라도 함께 살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면 서서히 정이 드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이 지금은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식었지만 학교 공사를 하다보면 애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면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학교 건축은 중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라도 학교 공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학교에 애정이 있다는 반증이고, 아이들도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툼퐁롱툼 마을 학교가 주민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교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모두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곳 아이들은 교복과 책가방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교복과 책가방을 거저 주지 않고, 학교에 오게 하는 당근으로 쓰기로 했다.

“한 달 후에 교복과 책가방을 줄 것인데 결석하는 학생은 못 받아요.”  
이렇게 문맹 퇴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미얀마JTS 식구들



## 아름다운 추억

- 미얀마에서 만난 사람들

2011년 출국하여 2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2월에 귀국하는 김성현 활동가가 미얀마를 떠나기에 앞서, 해외 사업장에서 활동하면서 만났던 이들에 대한 소회를 전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아름답게 기억될 미얀마에서의 추억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김성현 활동가

현지 자원봉사자 쉰쉰



안타깝게도, 내가 미얀마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이 전부 다 좋았던 것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국제 NGO의 책임자는 부유하고 돈 잘 쓰는 외국인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기대하고 나와 JTS에 접근하는 이들이 꽤 많다. 나는 월급을 받거나 주는 입장도 아닌 한낱 자원봉사자일뿐더러, JTS가 소위 '돈 잘 쓰는' NGO도 아닌 걸 생각하면, 나는 참 이런 선입견과 오해가 억울하다. 아무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자가용은커녕 현지인들로 가득 찬 만원 버스를 타며 또 현지 옷을 입고 다닌들, 그들은 나를 부자 나라 한국에서 온 사업가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나를 한국 NGO의 책임자라고 소개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주판알을 재빨리 굴리는 이들이 꽤 많다.

그들이 머릿속에서 주판알을 굴리니, 나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어른들의 땀방울과 아이들의 코가 묻은 소중한 후원금을 허투루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 돈으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하는 NGO사업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미얀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친절과 웃음에 더

현지 자원봉사자 이카잉



경계를 하고 조심할 해야 했다. 조심이 결국 의심이 되고 의심에서 불신이 싹 트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점점 지쳐 갔었다. 그럴 때 마다 나의 지친 심신을 힐링 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미얀마의 탄터빈 마을에서는 마을 운동회를 준비 중이다. JTS와 탄터빈 주민들은 2013년 수해 복구사업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JTS의 사업원칙을 잘 이해해 주고 따라와 준 마을 주민들도 참 고맙지만, 이 마을의 젊은 이장님은 특히 우리 JTS 활동가들을 진심으로 대해 준다. 미얀마는 현행법 상 외국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호텔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보통 우리들은 그나마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마을의 사원(절)에서 잠을 잔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원에서 스님의 허락만 받고 자면 괜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우려가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탄터빈 마을의 절에서는 한 번도 잠을 잤던 적이 없다. 탄터빈 마을 이장님이 결코 자신의 집을 두고 우리들이 절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점심, 저녁 진수

탄터빈 마을 이장님



성찬을 차려주고도 해가 저물 즈음이면 이웃집 어디론가 가서 마을에서 제일 좋고 뽕뽕한 베개와 담요, 돛자리 등을 가져 오신다. 이렇게 이장님이 챙겨주신 이부자리에서 자면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다. 그리고는 또 다음 사업장인 이웃마을로 갈 때는 새벽부터 직접 배를 태워주시고, 양곤으로 돌아가야 할 때면 터미널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을로 되돌아가신다.

탄터빈 마을에서 이웃한 쏘차웅 마을 이장님도 마찬가지이다. 쏘차웅 마을 이장님은 환갑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을 현장을 방문할 때면 직접 오토바이를 1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버스터미널까지 마중 나오신다. 나를 포함하여 현지 활동가 2명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시고는 다시 한 시간 반을 운전해서 우리를 현장에 데려다 주신다. JTS가 마을을 돕는 일이니까 마을 이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며 늘 아무렇지 않게 말씀 하시지만, 바쁜 농사일도 제쳐 놓고 JTS의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시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영 편치가 않으면서도 매번 반갑고 감사하다.

무엇보다 고마운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나와 함께 일 년 넘게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현지인 자원봉사자들이다. 쉰쉰(Su Su Tin)와 이카잉(Ei Khine Monn)은 사무실에서 머물며 매일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 갈 때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날 밤 9시가 넘어서 사무실에 돌아온다. 둘 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월급 없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단체나 회사의 직원들보다 열심과 진심으로 업무에 임한다. 깐깐하고 까다로운데다 고지식하기까지 한 나와 함께 1년 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쏘차웅 마을 이장님



이렇게 글로 쓰기 시작하니 여기에 다 쓰지 못할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이 연신 떠오른다. 미얀마에서 만난 한국 교민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고생한다며 늘 아들딸처럼 챙겨주신다.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니는지 여쭙봐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 한국과 다른 문화와 사고 방식에 힘들어 할 때면 여러 가지 조언과 위로를 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상처에 잘 듣는다. 특히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료 활동가가 땀겨열에 걸려 방콕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밥이며 약이며 몸에 좋다는 건강식들을 바리바리 챙겨 주시던 방콕의 JTS 후원자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내가 JTS의 활동가로 오지 미얀마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누리지 못할 호사스러운 행복이다.

어떤 곳에 머물렀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장소'에 대한 기억보다, '사람'에 대한 기억이 더 짙은 것 같다. 더러운 뒷동네에 머물렀어도, 그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 곳은 아름답게 기억된다. 반면에,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명소라도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지 않았다면, 그 곳에 대한 기억도 덩달아 좋지 않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고 JTS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미얀마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봉사활동이 아니라 다른 일로 왔다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몸과 마음은 더 빨리 지쳐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NGO인 JTS를 통해서 미얀마를 오게 되어, 마을 이장님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우리 현지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일 또는 모레면 그들과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들을 미얀마에서 많이 만나게 되어 큰 행운이다.



## 춘천 서상초등학교 학생들의 기부

- 춘천 서상초등학교 학생들, 바자회 수익금으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책가방 선물

지난 11월 12일, 춘천 서상초등학교(교장 김종국)에서는 뜻 깊은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서상초등학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2011년부터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기르고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예술 꽃 씨앗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2일 두 번째로 열린 희망 나눔 장터에서 어린이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제작한 앞치마, 나무 탁자, 화분, 그릇 등을 판매한 수익금의 50%를 기부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디자인 마케팅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스스로 물건에 가격을 매기고, 자신의 고유한 가격스티커를 디자인하여 붙였으며, 협동하여 각 학년 가게의 홍보 포스터와 간판을 제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판매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손수 판매하여 번 수익금의 50%인 2,198,660원을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주(배)의 따농, 인, 웅천, 땅아 마을 4개 학교에 다니는 3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책가방을 지원하는 뜻 깊은 사업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JTS는 서상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의 기부금이 한 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중한 수익금을 기부해주신 서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교장 선생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긴급구호 거리모금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휩쓸고 지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15일, JTS에서는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거리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역에서의 거리모금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사분란하게 태풍피해 긴급구호 거리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리모금 활동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에 힘입어 12월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82차례에 걸쳐 진행된 거리모금을 통해 총 29,766,765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거리모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태풍 하이옌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필리핀 지역의 긴급구호와 조기복구사업에 사용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서 주셨던 모금활동가 여러분과, 거리모금에 호응하여 기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인 김제동씨 필리핀 긴급구호 기부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 김인경 선수의 아버지



## 방송인 김제동씨, 필리핀 태풍피해 긴급구호에 1,200만원 쾌척

지난 11월 16일, 방송인 김제동씨가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필리핀의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으로 JTS에 1,200만원을 쾌척해주셨습니다. 김제동씨는 청년·대학생 정토회가 주최한 강연에 강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JTS의 이사장 법륜스님께 기부금을 전달하며,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제동씨의 계속되는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태풍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골퍼 김인경 선수, 태풍 하이옌 피해 긴급구호에 3,000만원 기부

전 국가대표 상비군이자 LPGA 투어에서 수차례 우승컵을 거머쥔 프로골퍼 김인경 선수가,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의 구호를 위해 JTS에 3,000만원을 선뜻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금은 김인경 선수의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JTS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께 전달해주셨습니다. 필리핀 주민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김인경 선수와 그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서 집과 학교가 무너져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 - JTS와 길벗이 함께하는 2013 연말 거리모금

지난 12월 21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는 JTS와 길벗이 함께한 정기 거리모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기아·질병·문맹퇴치를 위한 이번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거리모금 캠페인에는 노희경 작가와 JTS 홍보대사인 한지민 씨를 비롯하여, 길벗 거리모금의 핵심인 배우 배종옥, 윤소이, 박진희, 이재우, 백승도, 차중호 씨가 참석해주셨고, 모델 최태환, 지학섭, 김현준, 김한수 씨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언제나 거리모금 진행을 맡아주시는 방송인 김병조 씨와 뮤지컬배우 김형주 씨 까지 여러 고마우신 분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재즈가수 정가영씨와 싱어송라이터 채환씨, 희망콘서트 한선옥 밴드의 멋진 무대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간여의 거리모금 동안 연예인 참가자뿐만 아니라, JTS 서포터즈와 길벗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로 모금에 나서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배종옥 씨는 모금함 여러 개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시는 등, 오랫동안 거리모금의 핵심 멤버로서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쌓은 노하우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끓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을 기아와 질병, 문맹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참가자 여러분 덕분에, 유난히 추운 날이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의 모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JTS와 함께하여 주시는 출판사 북로그 컴퍼니에서 250만원을 쾌척해 주신 것에 더해, 거리모금을 통한 모금액이 계수 결과 총 750만원으로 확인되어, 역대 거리모금 사상 최대금액인 1,000만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금액은 태풍 하이옌에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사말섬 마라뵈트 지역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복구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신 길벗과 JTS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거리모금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자연재해로 배움의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복된 연말, 그리고 새해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건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을 향한 첫 걸음

JTS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와 나의 관계와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남양주에 위치한 진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준비된 JTS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권민성 활동가의 진행으로 열렸습니다.

진건 고등학교 1학년 11반 학생들과 박세원 담임선생님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거리모금을 진행하여 모금한 모금액 986,340원을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긴급구호 성금으로 전달해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모금활동에 감사드리며, 전해주시는 성금은 필리핀의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구호사업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미안마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두 젊은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지난 반 년간 이 분들이 있어서 본부 사무실이 늘 시끌벅적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미안마 사업장에서도 그 활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 출퇴근이 힘든 것 빼면 매일 웃을 일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해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나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착하게 살려다가 정기후원을 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JTS가 나왔습니다. JTS에 정기 후원을 하다 보니 소식지가 집에 날라 왔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이 너무나 밝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 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생각만 하다가 문득 현실을 돌아보니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서를 내었습니다.

Q. 해외봉사자를 모집하는 단체가 많은데, JTS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나요?

이게 위의 질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 돈을 절약하여 해외구호사업에 후원금을 대부분 사용하는 JTS의 사업원칙에 반하였습니다. 후원자가 매달 보내는 돈을 소중히 써 준다니,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Q. 해외사업장으로 파견 가기 전 한국 JTS에서 일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홍보물 제작과 JTS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거리모금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JTS 사무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리의 JTS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

Q. 해외에서 생활하셔야 하는데, 걱정은 되지 않으세요?

사람이 그리워서 걱정이 됩니다. 국내에 있을 때에는 자주 친구들과 주말을 보냈습니다. 소주 한잔에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미안마에서도 친구

들을 만들면 관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기는 하니, 부모님과 연락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Q. 미안마 사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미안마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현지인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느끼고 동화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모니터링도 많이 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야 제가 할 무언가가 보일 것 같습니다.

**Q. 해외 파견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신청서를 쓰고서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열정을 바치면서 하잖아요. 아니면 그만두면 되요. 오락실에서도 오락기에 처음 100원 넣기가 어렵지 그 이후로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천 원짜리 지폐도 몇 장 바뀌기면서 게임하잖아요? “봉사하고 싶다”고 생각한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을 위해 도전하세요.

**Q.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 가기 전 한국 JTS에서 일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JTS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해외 사업장에 나가서 지켜 나가야 되는 JTS의 모습을 몸소 체득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JTS의 사업 방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Q. 해외 봉사활동을 결심하고, JTS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작지만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 봉사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은 꼭 해봐야지 하면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러저러한 변명과 핑계들로 이런 마음이 흐릿해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일은 꼭 해보고 싶었기에 다시 한 번 해외 봉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김시열 활동가

이를 계기로 봉사를 하려고 봉사 단체를 찾던 중에 JTS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하고 규모가 큰 단체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전혀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유독 마음이 끌리는 곳이기에 이곳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Q. 해외에서 생활하셔야 하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고, 한국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곳에서는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난로를 켜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쉽게 사고 먹을 수 있었지만, 현지 사업장에 가면 이런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이 다 불가능하거나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살며 일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작은 일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맘에 걸립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살면 된다는 하지만, 혹시 양보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맘에 걸립니다.

**Q. 미안마 사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직은 그 곳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 선배 활동가 분들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잘 이어받으면서, 선배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지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 곳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JTS의 활동 방향과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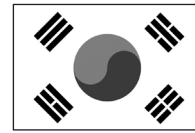
**Q. 해외 어려운 국가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직접 봉사를 해보신다면 많은 것을 얻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에 봉사 나가시기 힘들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재능을 나누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나누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다른 세계의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을 꺼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마음을 내서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Korea 국내소식



이정근안과 직원 여러분

### 1. 이정근안과, 인도 지바카 병원에 의약품 지원

이정근안과 이정근 원장님이 인도 불가촉천민 지역 등게스와리에서 JTS가 운영하고 있는 지바카 병원에 안약과 안연고 등의 의약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눈이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마을의 주민들도 이제 지바카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품을 지원해주신 이정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 국제로타리 3650지구 박영구 전 총재, 캄보디아 학교건축에 1만 달러 후원

11월 1일, 제3세계 국가의 교육사업과 기부로 유명한 국제로타리 3650지구 박영구 전 총재(금호전기 회장)가 캄보디아 땅아 마을의 학교건축 사업에 1만 달러를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청도 운문사에서 라오스 우물파기 사업에 후원

청도 운문사 흥륜스님과 학인들께서 라오스 우물파기 사업에 1,50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건기가 되면 마을마다 물이 동나는데 이 잦은 라오스에서, 우물은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스님과 학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4. 방송인 김제동씨 토크 콘서트 출연료 1,000만원 JTS 국내사업에 기부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후원에 이어, 12월 크리스마스에 열린 토크 콘서트 출연료 1,000만원을 JTS의 국내사업 기금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김제동씨의 계속되는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국내의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JTS 국내사업에 100만원 기부

국민타자로 유명한 이승엽 선수가 성탄절 김제동씨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던 자리에서 김제동씨와 함께 JTS의 국내사업에 10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JT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India 인도



우다다대. 공이 있는 곳으로 달려드는 아이들

### 1. 보훛 아차(“아주 좋은”이라는 힌디어) 어린이날!

11월 14일은 인도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의 예선전이 12일에, 결승전이 13일에 열렸습니다. 이슬이슬 흥미진진한 줄넘기, 엮치락뒤치락 즐거운 달리기, 수자타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선생님들의 축구 중계에 구경하는 아이들도 시합하는 아이들도 모두 모두 즐거운 축구시합! 모두가 함께 웃고 뛰면서 수자타 아카데미 친구들은 해맑은 모습으로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모던 댄스

### 2. 수자타 아카데미 20주년 개교기념식 준비

2014년은 수자타 아카데미가 20세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94년에 심었던 작은 씨앗이 지금의 수자타 아카데미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인도인 교사, 학생, 한국인 활동가가 모두 모여 머리 맞대고 준비를 시작하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에 숨 가쁘기도 하지만, 언제 손님들이 오시는지 묻는 교사와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설렘이 느껴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손님들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마을주민 안내 행사를 진행하는 인도인 스태프

### 3. 마을주민 대상 인도 JTS 사업안내 행사

12월 6일 수자타 아카데미 프락보디 홀은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가구당 2명씩 초대된 2,750 명으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마을 주민들이 모인 것은 JTS 사업 운영 원칙을 설명하고 위생교육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병원 사업안내, 위생교육, 학교 운영안내, 마을개발 사업안내, 마을리더 인사,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 축하공연, 만코시힐 주민 축하공연, 바가히 주민축하공연으로 내실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안내와 축하공연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마을 리더들이 전체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마을 주민자치의 일환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임단에 참여한 주민과 유치원생들

### 4. 마을 청소 쉬람단 :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치운다!

이번 마을 청소 쉬람단은 14개 마을주민 총 1,141명이 참가하여 거리를 말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유치원생 946명, 리더 59명, 마을주민 136명으로 유치원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유치원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청소 쉬람단을 하고자 합니다.



저체중아의 몸무게를 재는 중

### 5. 영양식 지급받고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

11월 23일 지바카 병원은 2013년 저체중아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4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심각한 저체중아 128명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지급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은 다행히 건강을 찾았습니다. 11월은 푸자(힌두 제사)기간으로 방문환자수가 약간 줄어들었으며 11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추수철이어서 환자수가 그리 많지 않아 하루 평균 60명 정도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 Philippine 필리핀



구호물품을 받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

### 1.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 긴급구호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레이테 섬 타나우안 지역 3개 바랑가이(행정단위) 2,000가구에 5인 가족 기준 5일분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쌀과 라면 등의 식품과 설탕 같은 조미료, 양동이와 빨래비누 같은 생필품이 지원되었으며, 사전에 물품 수령 쿠폰을 발행하여 줄을 선 순서대로 물품을 배분하였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배분이 가능했습니다.



블루안 학교에 염소 지원

### 2. 블루안 마을 학교에 염소 지원

12월 블루안 학교에 염소 4마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염소는 학교에서 관리하며, 염소를 통한 수익금은 학교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JTS 교사단합대회 참석자들

### 3. JTS 교사 단합대회

12월 19일 부터 20일 까지 다물록 지역 블루안 학교에서 JTS 교사 단합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JTS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14명 외 다물록 지역 정부 대표인 작, 말론과, JTS의 배명숙, 이재곤 활동가가 참석하여 블루안의 발전 사례를 견학하고, 각 학교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신난 만타부 아이들

### 4. 만타부 마을 의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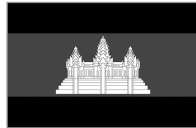
12월 19일에는 만타부 마을 50가구, 240명 주민에게 의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의류는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께서 후원해주신 것입니다. 이원주 대표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구류를 받은 다물록 블루안 학교 아이들

### 5. JTS 지원 학교 문구류 지원

라나오 델 노르테 지역 3개 학교(마탐파이, 마룬дук, 빅바니실론)와 다물록 지역 9개 학교(키다마, 키타스, 발라, 발루드, 사라와곤, 파공풍, 블루안, 미카실리, 바삭)에 문구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JTS센터가 있는 실리폰 지역 초등학교에 문구류를 지원하였습니다.



# Cambodia 캄보디아



툼퐁룽툼 학교 완공

### 1. 타뱅크로움면의 툼퐁룽툼 학교 완공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타뱅크로움면의 툼퐁룽툼 학교를 11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교실 4칸 규모로 면에서 가장 큰 학교인데요, 기존 학교의 붕괴위험으로 그동안은 작은 임시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튼튼한 새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따농 학교

### 2. 3개 마을 학교 건축 막바지 공사 한창 진행 중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3개 마을의 학교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3개 마을 모두 소수부족이 사는 가난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인'과 '따농' 마을 학교 건축은 우기가 지나고 자재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지금까지 약 70%의 공정이 진행되었고, 땅아 마을은 1년째 중단되었다가 지난 12월 10일 공사가 드디어 재개되어서, 주민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복 치수를 재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

### 3. 2013년 말 완공될 5개 학교 학생 교복 치수 재기

곧 완공할 5개 학교의 남학생 241명과 여학생 245명 등 총 486명에게 교복과 책가방을 나눠주기 위해,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교복 치수를 재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교복과 책가방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책가방은 강원도 춘천의 서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해 보내준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서상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을 어르신, 청소년과 회의

### 4. 마을 어르신·청소년 면담

지난 10월 18일, 28일과 12월 6일에 캄보디아 JTS에서는 '인'과 '따농' 마을의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자본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점점 바깥을 동경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글자 모르는 설움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학교를 선물하려는 어르신들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구류 지원중인 활동가들

### 5. 2013년도 2차 문구류지원

캄보디아 JTS가 기존에 학교건축을 지원했던 라타나끼리주(州) 4개 군의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구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연필, 공책, 볼펜, 지우개 등 기본적인 문구류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2013년에 완공된 '웁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문구류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 Myanmar 미얀마



마을 운동회 회의중인 탄더빈 마을 주민들

### 1. 탄더빈 마을 운동회

짜웅공 타운십의 탄더빈 6개의 마을의 마을 운동회가 1월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운동회에는 짜웅공 전통경기 '나룻배 경주'를 포함한 다양한 미얀마 전통 게임이 열릴 예정이며, 현재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열띤 운동회 준비 및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류수 학교 주민교육 모습

### 2. 사류수 초등학교 재건축

사류수 초등학교 재건축에 대비하여 JTS 사업 원칙에 대한 주민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공무원, 사업장, JTS간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청 엔지니어의 견적서를 토대로 자재 시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재건축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건조지대 도로건축사업 MOU 체결현장

### 3. 건조지대(Dry-Zone) 도로정비사업

미야잉 타운십 도로정비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미야잉 타운십 구청장과, 도로정비 위원회와 더불어 MOU를 체결하였고 JTS 사업 원칙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정비 사업과 관련된 견적서 및 시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Laos 라오스



착공식에 참석한 수쿠마군 교육청장

## 1. 곡농부아 마을학교 착공

라오스 JTS는 11월 27일, 곡농부아 마을 학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임시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서 수쿠마군 교육청장, 교육청 담당자들, 기술자들 및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에 참여하는 각 파트너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학교 지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캄보디아 JTS 활동가들이 이 날 착공식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더했습니다. 착공식 후에는 학교 부지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펌프 설치 작업

## 2. 펌프설치 및 전기설비 작업 진행

공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전기와 물 공급을 위해 학교 부지에 전기 설비를 갖추고 펌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비는 공사에 사용할 뿐 아니라 학교가 완공된 후에는 학교 시설로서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우기에는 수위가 높아져서 교실에 전등을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펌프는 시골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습관을 익혀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자 설치하는 화장실 시설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정준, 김신아, 최동호, 주연우, 김연희, 변유경, 이유진, 이은숙, 권도영, 김은아, 김정민, 박종화, 장준태
필리핀	민다나오 : 이원주, 이규초, 송지홍, 송현자, 배명숙, 이재곤, 김진진, 김희자 마라뭇 : 임희성, 오성근
캄보디아	정철상, 김재령, 박병수, 문태훈, 원석환
미얀마	김성현, 이모아, 이대원, 권민성*, 금시열*
라오스	배혜정

# 후원인의 소리



저희가 그동안 모은 지각비인데 추억을 남기고자 적은 돈이지만 기부합니다. 좋은 곳에 써주세요.  
-동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알뜰매장을 하여 모은 돈입니다. 맨발의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요.  
-신천중학교 2학년 5반-

결혼을 하게 되서 좋은 일 한번 하고자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좋은 일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동생 결혼을 축하하며 동생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이상돈-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 나의삶, 감사합니다.  
-배홍자-

올 회갑을 맞이하여 굶주리고 있는 복한 동포를 돕고 싶습니다.  
-김순옥-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인연 따라 순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이인정-

2013년 11월 3일자로 고인이 되신 유인 평산신씨 신혜숙(이모님)님의 장례에 와주신 고마운 분들의 이름으로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화-

끔찍한 재앙으로 실의에 빠져있을 필리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

어서 빨리 일어서길 기원합니다. 활동가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  
-이영숙-

필리핀 분들을 응원합니다.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주수용-

필리핀 피해 지역에서 갑자기 재해를 당해 돌아가신 모든 분과 모든 생물의 극락왕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빨리 회복되시길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 합니다.수고하세요.  
-하상만-

적은 돈이지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임현화-

동전 모은 것을 보시합니다. 모쪼록 못된 성질머리를 고치고 측은지심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윤영마-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